

5·18 정치적 악용·기념식장 지역민과 충돌 우려

5·18 39주기 행사 논란으로 떠오른 황교안 기념식 참석과 극우단체 집회

5·18행사위·시국회의 반대 기자회견
 “사과·약속 없이 5월 영령앞에 못 선다”
 평화당 “황대표는 광주 말할 자격 없어”

5·18 민주화운동 제39주년 기념식 당일 일부 극우 성향 단체의 광주 집회와 5월 망언 등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있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광주 방문이 5·18 39주년의 평화로운 행사 진행을 위태롭게 하는 논란으로 떠오르고 있다. 자칫 극우 단체와 지역민의 충돌이 우려되고, 황 대표의 5·18 기념식 참석이 정치적인 노림수로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역민과 정치권에서는 이들의 방문과 집회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4일 5·18 39주기 행사위원회와 5·18 역사왜곡 처벌 광주운동본부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5·18 참석과 보수단체 광주 집회 반대”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광주시 동구 옛 전남도청 5·18 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9주기를 앞두고 역사적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음에도 진상조사는 한결같지 않아서 못하고 있다”면서 “5·18을 왜곡하고 폄훼하고 있는 자들은 거리를 확보하고 있으며, 국민 앞에 약속한 왜곡처벌법 제정은 정치권의 헛구호로 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런 상황에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5·18 목숨을 금자하도록 훈령을 개정했던 황교안 대표와 한국당은 진상조

사, 법 제정도 가로막고 있고 5·18을 모욕했던 자들에 대한 처벌도 하지 않고 5월 영령 앞에 서겠다고 하고 있다”며 “사과와 법제정에 대한 구체적 약속, 조건없는 진상조사위 구성에 합의하지 않는 이상 광주에 발을 들여 놓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이들 단체는 오는 18일 39주 기념식이 열리는 당일 집회를 예고한 극우단체에 대해서도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극우단체는 17일과 18일 중창과 금남로, 망월동에서 전야제와 국가기념식에 맞춰 맞불집회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이는 제사상을 건어차겠다는 패륜적 행위”라고 말했다. 또 “이는 숭고한 5·18정신과 광주를 이념대결의 정치놀이로 농락하고 있는 것이다”며 “집회 계획을 철회하고 5월 정신을 모욕한 행위에 대해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평화당도 이날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아직 광주를 말할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면서 황 대표의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에 반대의 뜻을 밝혔다. 장정숙 평화당 5·18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황 대표는 그동안 5·18 가짜뉴스에 유난히 반대했고 진상을 밝히는 일에는 게을렀다. 오히려 광주 시민의 상처를 덧나게 하는데 일조해 왔고 제대로 사과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극우성향 단체의 광주 집회와 관련 일부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을 것으로 보고 경비를 강화할 방침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김홍희 기자 kimyh@kwangju.co.kr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4일 오전 국립 5·18민주묘지 운상원 역사 묘소를 참배한 뒤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있다. 왼쪽부터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권혁기 전 춘추관장,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 임 전 실장, 이용민 민주당 광주 광산갑지역위원장.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임종석 전 비서실장 “한국당 과거 더듬는 것 같아 안타까워”

청와대 1기 참모진 5·18묘지 참배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4일 광주를 찾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5·18 망언 문제를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난 뒤 5·18 39주년 기념식에 참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권혁기 전 춘추관장과 함께 국립 5·18 민주묘지를 방문한 임 전 실장은 한화 한 뒤 운상원·박관현 역사 묘소를 참배했다.

임 전 실장은 “황 대표가 5·18 기념식에 오시기로 한 결정은 잘 한 일”이라면서 “하지만, 망언 문제를 국회 절차상 해결 못 한다던 당 대표로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오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국민은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데 한국당과 황 대표는 과거를 더듬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로 광주정신을 훼손하고 촛불 민심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등 공안 통치 때나 있을 법한 인식을 스스로 없애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더 절박한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5·18묘지 참배에는 송갑석(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 이용민 민주당 광산갑지역위원장 등이 동행했다. 국립 5·18민주묘지 참배를 마친 임 전 실장 일행

은 인근 망월동 민주민족 역사묘역(5·18 구묘역)을 찾아 이한열·김준배 역사 묘소를 둘러본 뒤 “5·18 묘지에서는 마음이 무거웠다면 이곳은 동시대에 활동했던 분들이 잠든 곳이라 아프다”면서 “조용하게 참배하려고 알음알음 연락해 단출하게 왔다. 정치적인 의도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들은 오는 18일에는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박수현 국회의원 비서실장, 한병도 전 정무수석, 진성준 전 정부기획비서관, 남요원 전 문화비서관, 송인배 전 정부비서관, 김금옥 전 시민사회비서관 등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5·18 당일 극우단체 광주집회 무관심·무대응으로 대처하자”

이용섭 광주시장 당부

이용섭 광주시장은 5·18민주화운동 제39주년 기념식 당일 일부 극우 성향 단체의 집회와 관련해 광주 시민들이 무관심·무대응으로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14일 정무장(광산구 2) 의원의 ‘5·18 기념일 당일 극우 성향 단체 집회에 대한 광주시의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밝혔다.

이 시장은 “간접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21세기 대명천지에, 그것도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서 자행되고 있다”면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은 국민과 세계인의 시선이 집중되는 국가 기념식이 열리는 시각에, 자국적인 집회를 통해 광주시민들의 분노를 자아내 폭력적이고 배타적인 광주의 모습을 부각함으로써 보수 세력을 결집하고 반 5·18 정서를 자극하려는 의도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들의 간교한 목적이 광주가 절대 이용당하거나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다”며 “이럴 때일수록 5·18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이 이성적 판단

과 절제된 언행으로 성숙한 광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 시장은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생각하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광주시민은 분명 그들과 달라야 한다”고 거듭 지혜로운 대응을 당부했다.

이 시장은 특히 “이들의 집회가 실정법을 위반할 경우 엄정하게 처벌하도록 경찰에 촉구하겠으며, 집회 참가자들이 5·18 왜곡·폄훼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들의 물리적 반역사적 언행은 온 국민과 세계인들이 혹독하게 평가할 것이다”며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광주의 참모습과 함께 광주에서는 더는 이념 갈등도, 지역감정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시켜줄 기회”라고 덧붙였다.

극우 성향의 단체들은 5·18전야제가 열리는 17일 전남도 후문, 기념식이 열리는 18일 국립 5·18민주묘지와 금남로 일대에서 ‘5·18 폄훼 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5·18 유공자’와 관련한 의혹들을 제기하며 유공자 명단과 공적 조서 공개를 요구하는 단체로 알려져 있다. /최권일 기자 cki@

전남도 범도민 5·18 추념 행사...목포역 광장서 기념문화제

5·18 왜곡 규탄 특별법 제정 촉구 주먹밥 나누기·사진전 등 부대행사

‘전남도 5·18기념문화제’가 14일 목포역 광장에서 열렸다. 문화제는 전남의 5·18 항쟁사 낭독, 기념사, 추념사, 5·18 역사 왜곡 규탄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문 낭독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5·18민주화운동 제39주년을 맞아, 범 도민 기념행사는 사실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문화제는 전남지역 5·18 및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행사위원회를

구성해 준비했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이용재 도의회 의장, 장석웅 도교육감, 박지원·서삼석·윤소하 국회의원 등 전남지역 기관·사회단체장, 오월단체 대표, 대학생, 일반시민 등 3000여 명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추념사에서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와 번영은 수많은 지사, 열사, 애국시민의 피와 땀, 눈물의 결실”이라며 “5월 영령의 숭고한 정신은 6월 민주항쟁과 촛불혁명까지 이어진 원동력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역사왜곡 방지와 진실 규명을 위한 5·18 진상규명위원회 정상화, 5·18 역사왜곡 처벌 특별법 제정 필요성 등을 역설했다.

이날 행사에선 전남의 항쟁사를 부각해 5월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한 극단 깃들의 총체극 ‘남도 오월 꽃’이 선보여 그날의 아픔을 공감했다. 이밖에도 1980년 5월항쟁 당시 상황을 느껴보도록 주먹밥 나누기, 5·18 사진전, 5·18 배지 배부, 촛불 켜기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열렸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도민들도 그 당시 광주시민의 5·18과 함께 했었다”며 “2020년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5·18 민주유공자 지원을 강화하고, 범 도민 기념행사로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지우 기자 dok2000@kwangju.co.kr

가까운 무안에서 출발해요~ 이제 편리하게 가까운 무안공항에서 조이투어와 함께 하세요! 쯔~우~욱~

특가가 쏟아진다! 빨리 GET 하세요!♥

무안 ↔ 후쿠오카 큐슈 최대 도시

매주 월,수,금,일 출발

◆ [2박3일] 499,000원~ / [3박4일] 699,000원~

특가 & 집중모객

- ◆ 오이타 초특가 5/20,22일 출발 299,000원!!
- ◆ 다낭(베트남항공) 5월 출발 특가 499,000원!!
- ◆ 폭탄특가 대만 / 방콕 / 블라디 / 코타 / 마카오 / 세부 329,000원~

무안 ↔ 나트랑(젯스타항공)

7월 26일부터 총 10항 출발

[나트랑/달랏] 3박5일 799,000원~

무안 ↔ 오이타 *살랑~살랑 뽀빠리* 타고

매주 월,수,금 출발(최소인원 7명 이상 출발보장)

- ◆ [5/20,22일 출발] 초특가 벳부&유후인 3일 299,000원
- ◆ [월/수 출발] 오이타 벳부&유후인 3일 399,000원~
- ◆ [금 출발] 벳부&유후인&야나가와 벳놀이 4일 699,000원~

무안 ↔ 몽골 *가볍고, 상품질은수*

★6월 15일 ~ 8월 28일 까지(매주 수,토 출발)★

- ◆ [수요일] 4일 1,098,000원~ / [토요일] 5일 1,148,000원~
- ◆ [항공+호텔] 4일 649,000원~ / 5일 699,000원~

무안 ↔ 달랏(비엠텐항공)

7월 24일 ~ 3월 28일 까지(매주 수,토 출발)

[수요일출발] 4일 / [토요일출발] 5일 749,000원~

무안 ↔ 동경 매일출발 *일본의 수도 도쿄를 무안에서!*

★최저모객인원 7명 출발보장★

- ◆ 출발확정 5/24, 31 출발 동경&하코네 3일 799,000원!!
- ◆ [정통] 동경&하코네 3일(디즈니랜드선택관광) 749,000원~
- ◆ [정통] 동경&하코네 4일(디즈니랜드선택관광) 889,000원~

무안 ↔ 대만 정기편(제주항공)

매주 월,화,수,목,금,토,일 매일출발 3박4일

- ◆ [노팁,노음선] 스핀,단수이,야류,지우편 699,000원~
- ◆ [화련] 화련,태로각,지우편,야류 479,000원~

무안 ↔ 다낭(베트남항공&제주항공)

[베트남항공] 매주 화,금출발 / [제주항공] 매일 출발

[정통] 399,000원~ / [폭력] 699,000원~

무안 ↔ 동경 매일출발 *일본의 수도 도쿄를 무안에서!*

★최저모객인원 7명 출발보장★

- ◆ 출발확정 5/24, 31 출발 동경&하코네 3일 799,000원!!
- ◆ [정통] 동경&하코네 3일(디즈니랜드선택관광) 749,000원~
- ◆ [정통] 동경&하코네 4일(디즈니랜드선택관광) 889,000원~

무안 ↔ 대만 정기편(제주항공)

매주 월,화,수,목,금,토,일 매일출발 3박4일

- ◆ [노팁,노음선] 스핀,단수이,야류,지우편 699,000원~
- ◆ [화련] 화련,태로각,지우편,야류 479,000원~

무안 ↔ 블라디보스톡(제주항공)

- ◆ [월,수,토요일 출발] 블라디 ONLY 2박4일 549,000원~
- ◆ [월,수,토요일 출발] 블라디+우우리스크 2박4일 599,000원~

※모든 여행 상품에 따라 포함사항과 불 포함사항이 다르오니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 양국정부인허가조건 ※ 운항스케줄이 항공사 및 천재지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출발 날짜와 인원 수에 따라 상품 가격이 다르오니 홈페이지 및 전화상담을 통해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 기획여행 보증보험 가입 업체 등록번호: 제등다2003-1호
 ◆ 공통조건: 여행경비 1인 기준, 여행지원금 가입(세탁비용: 1인당, 국내상품 5만원), 관광진흥기금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 교통편: 항공 및 선박, 전철, 전차, 버스 / 전 지역 ◆ 상가 요금은 항공 및 항공료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준비금 가입 업체 ◆ 예약시 계약서(취소 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십시오. ◆ 경비업(단, 기사/기타도 봉사료, 선착순권, 각종 비자비용 등) ◆ 최소 출발인원: 상품에 따라 다름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 JOY TOUR